13-31 [통권 541호] 2013. 09. 24.

지 속 가 능 성 장 을 위 한

VIP 리포트

▮ 아시아권 생산기지의 투자 환경 비교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http://www.hri.co.kr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발 행 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장후석, 백흥기
발 행 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아시아권 생산기지의 투자 환경 비교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아시아권 생산기지의 투자 환경 비교 ····· 2

3. 시사점 ····· 13

【별첨】 ····· 15

【HRI 경제 통계】 ····· 16

< 요 약 >

개 요

○ 중국의 성장속도 둔화 및 임금 상승으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매력도 하락
○ 아세안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성장세 및 저임금으로 투자 매력도 상승

아시아권 생산기지의 투자 환경 비교

○ 생산기지 투자환경 종합비교 결과는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베트남 순
- 배후시장 이점 :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생산요소 우위 : 베트남, 미얀마, 태국, 라오스
- 인프라 및 안정성 우수 :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베트남
- 투자제도 유리 :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 부문별 비교결과 국내 주력 산업별 투자 환경 우위 국가
- **노동집약적 산업 : 베트남, 태국, 라오스**
  · 상대적으로 임금 및 지대 등 생산비용이 저렴하고 인적자원 풍부
- **소비재 산업 :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시장규모가 크고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배후시장 여건 양호
- **고부가·고기술 산업 :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 인적 자본의 질이 우수하고 인프라 수준이 양호하며 안정성이 높음

< 아시아권 생산기지의 투자 환경 비교 결과 >

(단위: 점)

	종합점수	배후시장	생산요소	인프라	안정성	투자제도
말레이시아	**6.4**	**5.7**	4.1	**7.5**	**7.4**	**7.5**
중국	**5.5**	**8.7**	4.5	**6.0**	**6.5**	2.0
태국	**5.2**	5.0	**4.9**	**6.3**	**4.8**	**5.0**
베트남	4.9	3.7	**6.2**	5.8	**4.8**	4.0
인도네시아	4.5	**6.3**	4.6	3.5	4.0	4.3
라오스	4.1	4.0	**4.9**	3.0	4.4	4.5
캄보디아	3.9	3.7	4.3	2.3	3.6	**5.5**
필리핀	3.8	4.7	3.8	4.1	3.6	2.8
미얀마	2.5	3.3	**5.9**	1.3	1.3	1.0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최저 1점에서 최고 9점으로 점수를 산출.

시 사 점

첫째,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로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 대한 진출 확대
둘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적극적인 소비시장 침투 전략 필요
셋째,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는 장기적 인프라 개발 연계 진출 모색
넷째, 아세안 진출시 생산비용 상승, 정치·사회적 불안정 등 리스크 요인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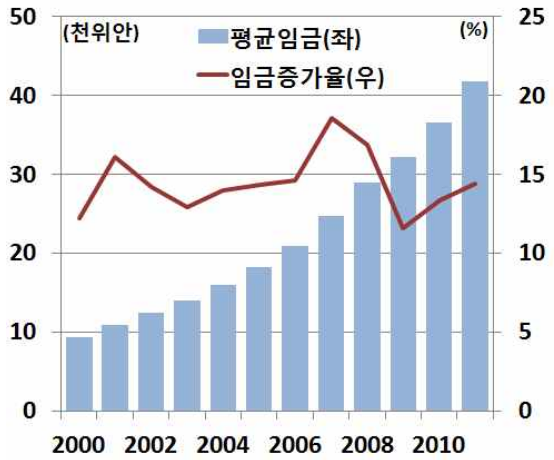
1. 개 요

-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글로벌 생산기지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들어 성장 속도 저하 및 생산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생산기지로서의 매력도가 하락**
  -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 경제는 최근 들어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성장속도가 둔화
  - 특히 2000년 9,333위안이던 근로자 평균 임금이 2011년 41,799위안으로 연평균 약 14.6%로 상승하는 등 근로자 임금 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매력도가 낮아지고 있음

- **반면 상대적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임금 수준도 낮은 아세안 지역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승**
  - 금융위기를 지나며 상대적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한 동시에 시장매력도도 높은 아세안, 중남미 등 신흥국가들이 중국을 대체할 생산거점으로 부상
  - 이에 따라 아세안 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현재 1,113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30억 달러 감소한 중국(1,211억 달러)에 근접한 수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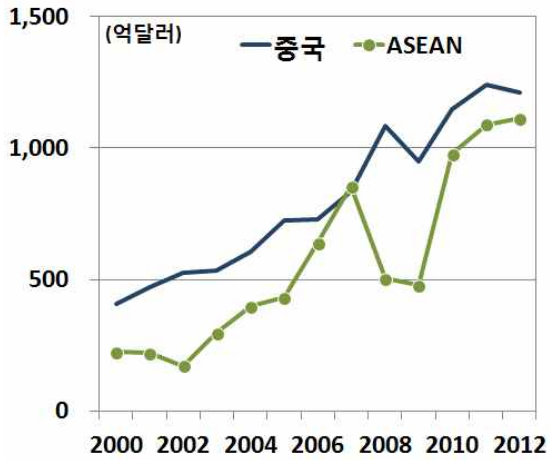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아세안과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권 주요 국가들의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환경을 비교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

< 중국의 연평균 임금 및 임금증가율 추이 >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중국과 아세안 지역의 FDI 유입 추이 >



자료: UNCTAD.

1)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브루나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으로 이루어진 지역협력기구임.

2. 아시아권 생산기지의 투자 환경 비교

1) 비교 대상 및 방법

- **(비교대상 국가) 아시아권 생산기지로서 투자 환경 비교를 위해 생산기지 진출이 유력한 중국과 아세안 8개 국가를 선정**
  - 아세안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국가별로 경제 규모 및 수준, 인구수, 국토면적 등이 다양
  - 아세안 국가 중 소득 수준이 높고 인구수가 적은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를 제외한 8개 국가를 선정, 중국을 포함한 총 9개 국가의 환경을 비교

< 비교 대상 국가의 1인당 GDP 및 인구 현황(2012년) >

(단위: 달러, 천명)

국가구분	1인당GDP (명목)	인 구
중국	6,076	1,354,040
말레이시아	10,304	29,457
태국	5,678	64,377
인도네시아	3,592	244,468
필리핀	2,614	95,800
베트남	1,528	90,388
라오스	1,446	6,376
캄보디아	934	15,254
미얀마	835	63,672

자료: IMF.
주: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아세안 국가인 싱가포르와 브루나이의 2012년 1인당GDP는 각각 50,000달러, 41,703달러, 인구수는 각각 531만명, 39만 9천명임.

- **(비교방법) 아시아권 주요 국가들의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투자 환경에 대해 배후시장, 생산요소, 인프라, 안정성, 투자제도 등 5가지 측면에서 비교**
  - UNCTAD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적 측면, 정책적 측면 및 사회적 측면이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평가[2)]
  - 본 보고서 상에서는 UNCTAD의 평가 방식을 일부 이용해 배후시장, 생산요소, 인프라, 안정성 및 투자제도 등 5가지 부문에서 아시아권 주요국의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환경을 비교 분석함

2) UNCTAD의 외국인직접투자 주요 결정요인('아시아 주요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분석(한국은행 국제경제분석, 2013.04.01.)'에서 재인용).
- 경제적 측면 : 시장매력도, 투자의 효율성, 자원의 이용도, 인프라 구축 정도
- 정책적 측면 : 국가의 안정성, 조세제도, 외국인 투자제도
- 사회적 측면 : 창업의 용이성, 사회적 환경

· 비교 세부지표는 최근 지표들의 각 국가별 순위를 토대로 1~9점으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지표별로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부문별 점수를 산출

· 비교 부문별로도 배후시장, 생산요소, 인프라, 안정성, 투자제도에 각각 20%로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 점수를 산출

< 부문별 비교 항목 및 세부 지표 >

부문	비교 항목	세부 지표	자료 출처
배후시장(20%)	시장규모	GDP 규모	IMF
	구매력	1인당 GDP	
	성장성	경제성장률 전망	
생산요소(20%)	인적자본	생산가능인구 고등교육 이수율	UN World Bank
	생산비용	근로자 임금 수준 산업용 부지 월임대료	JETRO
인프라(20%)	정보통신 및 전력	인터넷·통신 보급률 1인당 전력소비량	World Bank
	물류인프라	도로 및 철도, 수출 비용 물류성과지수(LPI)	World Bank
안정성(20%)	국가안정성	국가신용등급 부패 지수	Bloomberg Transparency International
	사회안정성	정치·사회적 안정성 지표	WEF
투자제도(20%)	사업 환경	투자자보호지수 사업 자유도	World Bank Heritage Foundation
	세율	이윤 대비 세율	World Bank

자료: 'World Investment Report(UNCTAD, 2012)' 및 '아시아 주요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분석(한국은행 국제경제분석, 2013.04.01.)'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1) 비교 부문별 괄호안 수치는 종합 비교 점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를 의미
2) 비교 부문별 점수 산출을 위한 세부지표별 가중치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
3) 세부지표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일 항목 내 다른 지표 점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2) 비교 결과

○ 종합비교 결과

- (종합비교 결과) 생산기지로서의 환경에 대한 종합비교 결과 말레이시아(6.4점), 중국(5.5점), 태국(5.2점), 베트남(4.9점) 순으로 나타남

· 말레이시아는 인프라(7.5점), 안정성(7.4점), 투자제도(7.5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배후시장 역시 5.7점으로 나타나 종합비교 결과 6.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

· 중국은 생산요소(4.5점) 및 투자제도(2.0점) 부문 점수가 다소 낮으나 배후시장(8.7점), 인프라(6.0점), 안정성(6.5점)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냄
· 태국은 모든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탔으며, 베트남은 배후시장(3.7점), 투자제도(4.0점)는 다소 낮으나 생산요소(6.2점) 점수가 가장 높음

- **(부문별 비교 결과)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로서는 말레이시아, 태국과 베트남, 배후시장 진출은 중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비교**
  ·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로서는 생산요소 부문 점수가 높은 국가 중 인프라 수준 및 국가·사회적 안정성이 높고 투자제도 역시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국가인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태국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비교
  · 미얀마나 라오스 역시 생산요소 부문 점수가 높지만 인프라 수준이 열악하고 국가 및 사회 안정성이 낮아 생산기지로서의 환경 비교 점수가 낮음
  · 배후시장 여건은 중국이 시장규모, 구매력, 성장성에서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말레이시아 또한 인프라와 투자제도 점수가 높고 소득 수준이 높아 고부가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가 기대됨
  · 인도네시아는 구매력은 다소 낮지만 인구 대국인 동시에 향후 경제성장 가속화가 기대됨에 따라 중국에 이은 제2의 수출 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 **(산업별 투자 환경) 노동집약적 산업은 생산요소, 소비재 산업은 배후시장과 인프라, 고부가·고기술산업은 투자제도, 인프라 및 안정성 등이 중요할 것을 판단**
  · 신발, 의류와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생산비용이 저렴하고 인적자원이 풍부한 베트남, 태국, 라오스 등이 생산기지로서 적합할 것으로 판단[3)]
  · 반면 가전이나 자동차와 같은 소비재 산업은 수출기지로서의 중요성과 더불어 진출 국가의 배후시장 및 인프라를 고려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자 비중이 높아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유리
  · 반도체, 휴대폰과 같은 고부가·고기술 산업은 인적 자본의 질이 높고 인프라 및 안정성이 높은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

3) 베트남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 최근 임금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최근 아세안 지역의 임금 인상 현황은 【별첨】 참조.

< 아시아권 생산기지의 투자 환경 비교 결과 >

(단위: 점)

	종합점수	배후시장	생산요소	인프라	안정성	투자제도
말레이시아	**6.4**	**5.7**	4.1	**7.5**	**7.4**	**7.5**
중국	**5.5**	**8.7**	4.5	**6.0**	**6.5**	2.0
태국	**5.2**	5.0	**4.9**	**6.3**	**4.8**	**5.0**
베트남	4.9	3.7	**6.2**	5.8	**4.8**	4.0
인도네시아	4.5	**6.3**	4.6	3.5	4.0	4.3
라오스	4.1	4.0	**4.9**	3.0	4.4	4.5
캄보디아	3.9	3.7	4.3	2.3	3.6	**5.5**
필리핀	3.8	4.7	3.8	4.1	3.6	2.8
미얀마	2.5	3.3	**5.9**	1.3	1.3	1.0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최저 1점에서 최고 9점으로 점수를 산출
2) 굵은 글씨는 각 비교 부문별 1~3위를 의미.

○ **배후시장**

- **(시장규모) 시장규모면에서 보면 현재 중국이 다른 아세안 8개국 전체에 비해 약 4배 더 큰 규모이며 이러한 규모 차이는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
  - 2000년 중국의 PPP 기준 GDP는 3조 달러로 8개국 합계 1.3조 달러 규모인 아세안에 비해 약 2.3배 정도였으나, 2012년에는 12조 달러로 3조 달러인 아세안에 비해 약 4배 규모로 성장
  - 향후 중국 GDP(PPP 기준)는 2018년 22조 달러로 예상되나, 아세안의 경우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인도네시아 2018년 2조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 유지될 전망

- **(구매력) 구매력은 말레이시아와 태국, 중국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
  - 중국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2012년 현재 약 9,162달러 수준에서 2018년 약 16,232달러로 증가할 전망
  - 반면 현재 아세안 중 말레이시아와 태국(2012년 각각 16,922달러, 10,126달러)를 제외하면 중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 2018년에도 인도네시아 7,487달러, 필리핀 6,133달러. 베트남 5,090달러 등에 불과할 전망

< 아시아권 주요국의 GDP 규모 및 1인당GDP 전망 >

국 가	GDP(PPP기준 십억달러)			1인당 GDP(PPP기준 달러)		
	2000	2012	2018(E)	2000	2012	2018(E)
중국	3,015	12,406	22,641	2,379	9,162	16,232
말레이시아	214	498	760	9,088	16,922	23,324
태국	310	652	965	5,007	10,126	14,636
인도네시아	501	1,217	1,993	2,429	4,977	7,487
필리핀	188	424	660	2,442	4,430	6,133
베트남	111	321	494	1,424	3,548	5,090
라오스	6	19	34	1,199	3,011	4,896
캄보디아	12	37	63	908	2,402	3,886
미얀마	23	89	149	459	1,405	2,076

자료: IMF.

- **(성장성) 중국의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되더라도 성장 속도는 주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

· 2000~2012년 사이 중국은 연평균 10.1%로 고속 성장했으나, 2018년까지 성장률은 연평균 8.4%로 다소 둔화될 전망

·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성장 속도가 가속화 될 전망이나 여전히 중국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

< 아시아권 주요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국 가	2000~2005	2005~2012	2012~2018(E)
중국	9.8%	10.4%	8.4%
말레이시아	4.7%	4.7%	5.2%
태국	5.1%	3.5%	4.7%
인도네시아	4.7%	5.9%	6.4%
필리핀	4.6%	5.0%	5.5%
베트남	7.5%	6.6%	5.4%
라오스	6.3%	8.0%	7.8%
캄보디아	9.3%	6.7%	7.3%
미얀마	12.9%	7.2%	6.7%

자료: IMF.

○ 생산요소

- (생산가능인구)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과 달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 증가할 전망
  - · UN에 따르면 중국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0년 73.5%에서 2020년 70.1%, 2030년 68.0%로 하락할 전망
  - · 반면 대부분 아세안 국가들은 2000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구보너스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기대[4)]

- (교육 수준) 중국의 교육 수준은 낮은 수준이었으나 빠르게 개선
  - · 인적자본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대학교육(3차 교육) 이수자 비율을 보면 중국은 2000년 8.0%로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2011년에는 26.8%로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
  - · 반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은 여전히 20% 이하로 나타나 인적 자본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

< 아시아권 주요국의 생산가능인구/총인구 비중 추이 >

(%)

	2000	2010	2020(E)	2030(E)
중국	67.5	73.5	70.1	68.0
말레이시아	62.8	67.5	69.3	68.1
태국	69.3	71.8	71.3	66.8
인도네시아	64.7	65.2	67.8	68.5
필리핀	58.3	61.0	63.6	64.5
베트남	62.0	70.0	70.5	69.5
라오스	52.9	59.5	62.4	65.8
캄보디아	55.4	63.1	62.9	64.4
미얀마	64.5	68.8	70.6	70.7

자료: UN.
주: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총인구 대비 15~64세 인구의 비중을 의미.

< 아시아권 주요국의 대학교육 이수자/총인구 비중 추이 >

(%)

	2000	2005	2011
중국	8.0	19.4	26.8
말레이시아	25.7	29.3	42.3
태국	34.9	43.9	47.7
인도네시아	14.7	16.5	24.9
필리핀	30.1	27.5	28.2
베트남	9.7	15.7	24.4
라오스	2.7	7.9	17.7
캄보디아	2.7	3.4	14.5
미얀마	12.2	11.0	14.8

자료: World Bank.
주: 말레이시아 2011년은 2010년, 필리핀 2011년과 2000년은 각각 2009년, 2001년, 미얀마 2005년과 2000년은 각각 2007년, 2001년 자료를 이용.

4) 종합 점수 산출시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더불어 생산가능인구 자체도 포함.

- **(지대) 저소득 아세안 국가들의 산업용 부지 임대료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나 아세안 중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임대료는 중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
  - 2002년 산업용 부지 월임대료(㎡당)가 아세안 중에서 높은 편이던 방콕(4.60달러), 자카르타(3.95달러), 마닐라(4.75달러)는 베이징(5.44달러)보다는 낮았음
  - 2012년 현재 여전히 베트남, 미얀마 등의 임대료는 매우 낮은 수준이나 태국(방콕 7.06달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5.50달러), 필리핀(마닐라 6.60달러) 등은 중국(베이징 5.97달러)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

- **(근로자 임금) 한편 과거 아세안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던 중국 근로자 임금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값싼 노동력에 대한 이점은 감소**
  - 중국의 주요 도시 월평균 근로자 임금 수준을 보면 2002년 베이징 121달러, 상해 207달러, 선양 185달러 수준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주요 도시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었음
  - 그러나 중국 임금은 2012년 베이징 538달러, 상해 439달러 등으로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에 대한 이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방콕 286달러, 쿠알라룸프 344달러, 자카르타 209달러, 마닐라 325달러)

< 아시아권 주요국의 산업용 부지 임대료 및 월평균 근로자 임금 변화 >

(단위: 달러)

국 가	도시	산업용 부지 월임대료(㎡당)		월평균 근로자 임금	
		2002	2012	2002	2012
중 국	베이징	5.44	5.97	121	538
	상해	2.20	3.58	207	439
	선양	1.63	3.58	185	29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	-	208	344
태국	방콕	4.60	7.06	163	28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3.95	5.50	108	209
필리핀	마닐라	4.75	6.60	150	325
베트남	호치민	0.08	0.24	118	130
라오스	비엔티안	1.00	0.05	69	132
캄보디아	프놈펜	1.75	0.11	100	74
미얀마	양곤	0.04	0.48	29	68

자료: JETRO(2003, 2012).
주: 1) 아세안 국가의 경우 각국 수도를 기준(단, 베트남과 미얀마는 제외)
2) 산업용 부지 월임대료의 경우 특정 건물 및 부지의 임대료를 조사한 것으로 도시 전체의 평균적인 월임대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월평균 근로자 임금 역시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도시 전체의 평균적 근로자 임금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3) 비엔티안과 프놈펜은 2002년이 아닌 2006년 자료임.

○ 인프라

- (ICT 및 전력 인프라) ICT 및 전력 인프라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중국보다 낙후된 상황
  -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자수는 2.6명인 미얀마를 제외하고 모든 아세안 국가가 중국(73.2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터넷 이용자수는 중국이 42.3명으로 말레이시아(65.8명)를 제외한 다른 아세안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
  - 1인당 전력소비량 역시 중국이 1인당 2,944kwh로 말레이시아(4,136kwh)를 제외하고 아세안 국가들 보다 높음

< 아시아권 주요국의 주요 ICT 및 전력 인프라 현황 >

국 가	인터넷 이용자수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자수 (100명당)	1인당 전력소비량 (kwh/명)
중국	42.3	73.2	2,944
말레이시아	65.8	127.0	4,136
태국	26.5	111.6	2,335
인도네시아	15.4	87.2	639
필리핀	36.2	99.3	641
베트남	39.5	143.4	1,035
라오스	10.7	103.1	-
캄보디아	4.9	96.2	144
미얀마	1.1	2.6	-

자료: World Bank.
주: 인터넷 이용자수는 2012년, 무선전화 가입자 수는 2011년, 1인당 전력소비량은 2010년 기준.

- (물류 인프라) 물류 인프라 역시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을 제외하고 열악한 수준
  - 도로 및 철도 연장의 경우 말레이시아와 태국, 베트남만이 중국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이며, 이외 국가들은 중국보다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평가
  - 수출 비용의 경우 말레이시아(435달러/TEU) 외 모든 아세안 국가들의 비용이 중국(580달러/TEU)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물류경쟁력을 나타내는 LPI 지수는 중국(3.52) 모든 아세안 국가들보다 높음

< 아시아권 주요국의 주요 물류 인프라 현황 >

국 가	도로 포장률 (%)	철도연장 (m/㎢)	수출 비용 (달러/TEU)	물류경쟁력지수(LPI) (5점 만점)
중국	53.5	7.10	580	3.52
말레이시아	80.9	5.07	435	3.49
태국	98.5	8.67	585	3.18
인도네시아	56.9	1.86	644	2.94
필리핀	9.9	1.61	585	3.02
베트남	47.6	7.57	610	3.00
라오스	13.7	-	2,140	2.50
캄보디아	6.3	3.68	755	2.56
미얀마	11.9	-	-	2.37

자료: World Bank.
주: 1) 도로포장률 및 철도연장 자료는 각 국가별 가장 최근 자료(2007~2011년)를 이용하였으나 자료가 미비한 국가(도로포장률 태국 2000년, 필리핀 2003년 등)가 존재
2) LPI(Logistics Performance Index)는 World Bank가 물류 부문 6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물류경쟁력 지수.

○ 안정성

- (국가 안정성) 국가 안정성은 중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국가 안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은 중국의 경우 Aa3 등급(Moody's)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
- 특히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등급은 Baa등급(Moody's) 이하의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나타나 리스크가 큰 것으로 평가
- 한편 국제투명성 기구의 부패 지수의 경우 중국은 2012년 3.9점으로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아세안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임[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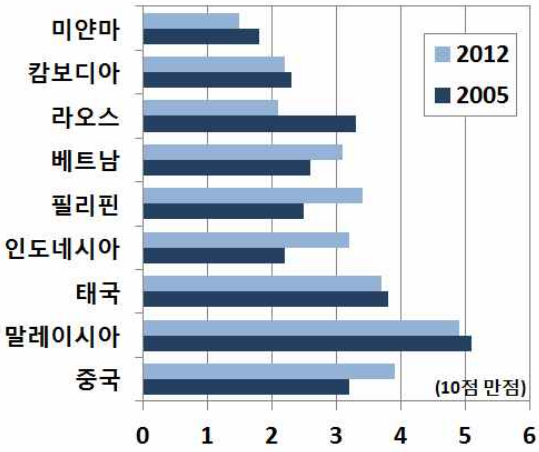
5) 부패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지수로 기업인과 전문가들에게 실시한 공무원과 정치인의 청렴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출.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된 정책결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의 투자 활력을 저해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하여 국가 안정성 지표로 이용함 ('부패와 경제성장(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2012.05.25.)'에서 재인용).

< 아세안 및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현황 >

	Moody's	S&P	Fitch
중국	Aa3	AA-	A+
말레이시아	A3	A-	A-
태국	Baa1	BBB+	BBB+
인도네시아	Baa3	BB+	BBB-
필리핀	Ba1	BBB-	BBB-
베트남	B2	BB-	B+
캄보디아	B2	B	-

자료: Bloomberg.
주: 1) 평가사별 평가등급 체계는【별첨】참조.
2) 라오스와 미얀마는 평가결과 없음.

< 아세안 및 중국의 부패 지수(TI) >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주: 1) 부패지수는 10점 만점으로 0점이면 가장 부패한 수준
2) '12년은 100점 만점을 10점 만점으로 변환

- **(사회 안정성) 사회 안정성 또한 중국이 대부분 다른 국가들보다 다소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은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중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직범죄, 테러, 범죄 및 폭력에 따른 기업 비용 측면에서는 중국과 유사한 수준
  - 특히 미얀마의 경우 조직범죄, 테러, 범죄 및 폭력에 따른 기업 비용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아시아권 주요국의 사회 안정성 관련 지표 >

(단위: P)

국 가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조직범죄에 따른 기업 비용	테러에 따른 기업 비용	범죄 및 폭력에 따른 기업 비용
중국	4.1	4.7	5.0	4.8
말레이시아	4.3	5.2	5.3	4.6
태국	2.0	4.8	4.5	4.6
인도네시아	3.2	4.1	4.6	4.4
필리핀	2.5	4.8	4.4	4.1
베트남	3.4	4.9	5.4	4.8
라오스	4.2	4.7	5.5	5.0
캄보디아	3.1	5.1	5.3	4.5
미얀마	3.1	2.9	2.7	3.0

자료: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2014(WEF).
주: 각 지표는 1~7점 사이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공의 신뢰가 높으며, 기업 비용은 낮음을 의미.

○ 투자 제도

- **(사업환경)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강도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중국보다 높지만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투자자 보호 강도는 5.0점으로 인도네시아(6.0점), 말레이시아(8.7점), 태국(7.7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반면 필리핀(4.3점), 라오스(1.7점), 베트남(3.0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 투자자 보호 강도가 중국보다 낮음
  - 다만 사업 자유도의 경우 캄보디아를 제외한 모든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율) 중국의 이윤 대비 세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아세안 국가들에 비하면 아직까지 매우 높은 수준임**
  - World Bank에 따르면 중국의 이윤 대비 세율은 지난 2005년 80%에서 2012년 63.7%로 하락하였으나, 아세안 국가 중 46.6%로 세율이 가장 높은 필리핀과 비교시에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
  - 특히 2012년 기준 22.5%로 세율이 가장 낮은 캄보디아와는 약 41.2%p 차이가 나는 등 대부분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

< 아시아권 주요국의 투자자 보호 지수 및 사업 자유도 지수 >

(단위: P)

	투자자 보호	사업 자유도
중국	5.0	48.0
말레이시아	8.7	79.9
태국	7.7	73.2
인도네시아	6.0	50.2
필리핀	4.3	53.1
베트남	3.0	63.8
라오스	1.7	62.1
캄보디아	5.3	39.4

자료: Donig Business 2013, Heritage Foundation.
주: 1) 투자자 보호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
2) 사업 자유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0점
3) 미얀마는 평가 점수가 없음.

< 아시아권 주요국의 이윤 대비 세율 추이 >

(%)

	2005	2008	2012
중국	80.0	79.9	63.7
말레이시아	36.0	34.5	24.5
태국	37.7	37.8	37.6
인도네시아	37.3	37.3	34.5
필리핀	49.8	49.4	46.6
베트남	40.0	40.1	34.5
라오스	35.5	33.7	33.3
캄보디아	22.6	22.6	22.5

자료: World Bank.
주: 미얀마는 이윤 대비 세율 자료가 없음.

3. 시사점

첫째,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로서 말레이시아와 태국, 베트남에 대한 진출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 중국의 빠른 인금 인상으로 인해 중국 진출 기업들의 생산비용 상승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를 대체할 새로운 생산기지로서 아세안 지역에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나 아세안 지역의 경우 배후시장 여건이나 생산요소, 인프라 등이 투자 환경이 매우 다양

- 생산비용 외 인프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아세안 국가 중 말레이시아와 태국, 베트남이 대체 생산기지로 가장 유리한 환경임
  · 낮은 임금 수준과 지대 등 생산비용만을 고려한다면 인도네시아나 미얀마와 같은 국가가 대체 생산기지로서 매력도가 높아 보이나, 인프라 수준이나 안정성 등을 고려시 오히려 태국과 베트남이 유리한 조건

둘째, 중국을 비롯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을 염두에 둔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 중국은 그 동안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탈피하고 내수 확대 및 투자 축소 등 경제구조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시장 확대가 기대

- 또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아세안의 인구 규모 및 경제성장을 고려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에 이은 글로벌 소비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들 국가에 대해 단순히 대선진국 수출 상품 생산기지 전략이 아닌 현지 판매를 위한 생산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소비재 산업 및 유통산업 등의 진출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 한류 열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급증하고 있는 중산층 소비자 들이 한국 기업 및 상품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

셋째, 상대적으로 인프라 수준이 낙후된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는 장기적 관점에서 인프라 개발과 연계된 사업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 중국 및 아세안 중진국들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아세안 저개발국 등이 대체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음
  · 그러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의 아세안 저개발 국가들은 인적자본의 질이나 인프라 수준이 열악하고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제도 등에서도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

- 아세안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국가 기반 인프라 시설 개발 참여 등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진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연계된 정부 차원에서의 국가간 우호 관계 개선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도로, 철도 및 통신 인프라 개발 등에 적극 참여할 필요

넷째, 아세안에 대한 진출시 생산비용 상승, 정치·사회적 불안정성 등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보다 낮은 생산비용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향후 임금 및 지대 상승 등의 생산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또한 정치·사회적 불안정성도 높은 편
  · 특히 아세안 중진국의 경우 이미 중국에 근접한 수준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진출 기업들의 비용 상승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 아세안 저개발국은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낮은 수준이나 인프라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한다면 생산기지로서의 매력도가 낮은 편임

- 따라서 아세안 국가에 진출시 향후 생산비용 상승, 정치·사회적 불안정 등의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 이미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자동화 및 생산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하며,
  ·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입지 및 생산비용, 인프라 기반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HRI

【별 첨】

① 최근 아세안 지역의 임금 인상 현황

- **그 동안 중국과 마찬가지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를 유인하던 아세안 주요 국가들에서 최근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
  - 아세안 주요 국가들은 정치적인 이유 및 노동계의 요구,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상승시킴
  - 이에 따라 중국과 마찬가지로 값싼 노동력을 통해 생산 비용을 줄이던 기업들의 경영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임금 인상 움직임은 현재 일부 국가의 노동집약 산업에 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파급효과가 점차 주변국 및 타산업으로 확대될 전망

< 아세안 주요국의 최저임금 인상 및 도입 현황 >

국가	통화	2013년 월최저임금	인상률	인상원인
인도네시아	루피아	220만	44%	노동계 요구
	달러	227		
태국	바트	6,000	35%	총선 공약 실천
	달러	200		
베트남	동	165만~235만	17%	인플레이션 반영
	달러	79~113		
말레이시아	링깃	800~900	-	정치적 이유
	달러	263~296		

자료: '2013년 동남아 주요국의 임금 인상 원인과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포커스 Vol.7 No.24, 2013.04.23.)'에서 재인용.

②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체계

<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체계 >

	Moody's	S&P	Fitch
투자적격	Aaa	AAA	AAA
	Aa1 / Aa2 / Aa3	AA+ / AA / AA-	AA+ / AA / AA-
	A1 / A2 / A3	A+ / A / A-	A+ / A / A-
	Baa1 / Baa2 / Baa3	BBB+ / BBB / BBB-	BBB+ / BBB / BBB-
투자부적격	Ba1 / Ba2 / Ba3	BB+ / BB / BB-	BB+ / BB / BB-
	B1 / B2 / B3	B+ / B / B-	B+ / B / B-
	Caa / Ca / C	CCC / CC / C	CCC / DDD / DD / D

조규림 선임연구원 (jogyurim@hri.co.kr, 02-2072-6240)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3.7	2.8	2.4	1.6	1.5	2.0	1.5	2.3	2.6
	민간소비(%)		2.4	1.3	1.0	1.7	2.7	1.7	1.5	1.7	2.1
	건설투자(%)		-4.7	-0.4	-3.1	-0.3	-4.2	-2.2	2.4	7.1	2.5
	설비투자(%)		3.6	8.8	-3.5	-6.9	-5.2	-1.9	-11.9	-5.1	1.0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		261	26	112	146	148	431	100	198	395
	통관기준	무역수지(억 $)	308	12	97	75	99	283	57	143	270
		수출(억 $)	5,552	1,348	1,401	1,331	1,398	5,479	1,354	1,413	5,589
		증감률(%)	(19.0)	(2.9)	(-1.7)	(-5.8)	(-0.4)	(-1.3)	(0.4)	(0.8)	(2.0)
		수입(억 $)	5,244	1,337	1,304	1,257	1,298	5,196	1,297	1,269	5,319
		증감률(%)	(23.3)	(7.8)	(-2.9)	(-6.9)	(-1.1)	(-0.9)	(-3.0)	(-2.7)	(2.4)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3.0	2.4	1.6	1.7	2.2	1.4	1.1	1.6
실업률(%)			3.4	3.8	3.3	3.0	2.8	3.2	3.6	3.1	3.3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8	1,131	1,152	1,133	1,090	1,127	1,085	1,123	1,105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